

11차시 : 보험

1 보험의 정의와 역할

1) 보험의 정의

-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사고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 사고가 사람의 생사(生死) 및 재물의 손실 발생시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된다. 보험은 이처럼 주로 사람의 생사(生死) 및 재물의 피해사고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성립된 제도인데, 많은 사람이 모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소액의 보험료를 각출해서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한 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손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제준비의 사회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은퇴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들

2) 보험의 기본원리

- 상부상조의 정신
 - 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서로 적은 금액을 예치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마련해두고 그 구성원 가운데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돕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보험이며 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 공평한 위험부담
 -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평한 위험부담을 위해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작성한 사고에 대한 위험률표, 생명표와 사망률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3) 보험의 필요성 및 역할

- 보험을 필요성
 - 핵가족화와 자기 책임주의
 - 급속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도시화가 급진전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 구성이 핵가족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책임하의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 <가족 형태별 구성비> 단위:%

구분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
----	-----	------	----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계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친과 자녀	
1975	5.0	55.6	10.1	70.7	0.5	10.9	17.9
1985	7.8	57.8	9.7	75.3	0.8	9.9	14.0
1995	12.6	58.6	8.6	79.8	1.1	8.0	11.1
2000	14.8	57.8	9.4	82.0	1.1	6.8	10.1

□ <가족 평균가족수>>

단위:명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가족수	5.1	4.5	4.1	3.7	3.3	3.1

• 재해와 성인병의 증가

-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사회 진전에 따른 각종 재해와 공해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질병의 증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여건 위험요소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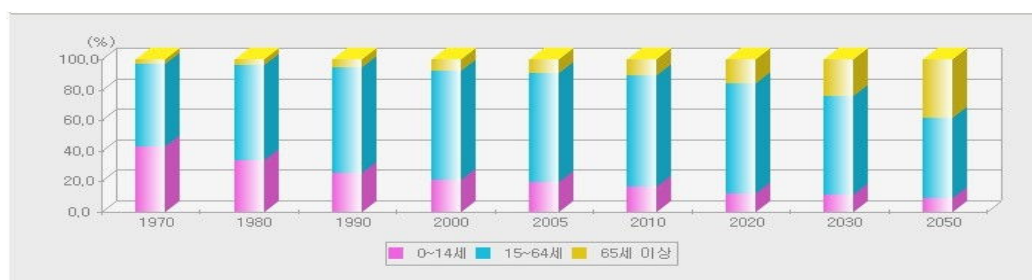
□ <2005년 주요사망원인>

자료 : 통계청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전체	526.3	518.3	522.7	507.0	508.8	504.3
신생물	112.1	115.3	116.6	125.5	133.1	136.0
- 각종 암	110.8	113.3	114.7	123.5	131.8	134.5
* 위암	26.5	25.6	24.0	24.0	24.3	22.6
* 간암	22.0	21.2	20.7	21.3	22.8	22.5
* 폐암	18.9	20.8	22.1	25.0	26.4	28.4
내분비 및 대사성질환	18.7	20.2	23.6	25.7	26.5	25.5
- 당뇨병	17.2	18.8	21.8	23.8	25.0	24.2
순환기계통의 질환	138.6	121.3	122.0	120.8	124.7	116.2
- 고혈압성 질환	18.3	9.6	7.6	10.2	10.7	9.3
- 심장 질환	36.9	35.8	39.1	34.2	35.6	39.6
- 뇌혈관 질환	79.7	73.5	72.9	73.8	75.5	64.3
호흡기계통의 질환	24.3	24.4	27.6	32.8	30.0	29.4
- 폐렴	4.2	4.9	6.8	6.1	5.8	8.6
- 천식 등 만성하기도 질환	14.9	13.6	13.7	19.0	19.1	15.5
소화기계통의 질환	39.2	34.4	31.6	30.1	26.7	23.1
- 간 질환	29.4	26.1	23.5	22.3	20.6	17.3
사망의 외부요인	75.4	70.5	63.5	60.0	65.3	63.6
- 운수사고	38.7	33.5	26.3	21.0	19.1	16.3
- 자살	11.8	14.1	16.1	15.5	24.0	26.1

• 노후에 대한 불안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비약적인 신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 되고 있다.



< 연령별 인구 >

[단위: 천명,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인구수	0~14세	13,709	12,951	10,974	9,911	9,241	7,907	6,118	5,525	4,777	3,763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4,530	35,611	35,506	31,299	26,525	22,424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4,367	5,357	7,701	11,811	15,041	16,156
구성비	0~14세	42.5	34.0	25.6	21.1	19.2	16.2	12.4	11.4	10.3	8.9
	15~64세	54.4	62.2	69.3	71.7	71.7	72.9	72.0	64.4	57.2	53.0
	65세 이상	3.1	3.8	5.1	7.2	9.1	11.0	15.6	24.3	32.5	3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보험의 역할
 -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
 - 노후보장으로서 노후의 생활비와 의료비 마련
 - 장기적 투자를 통한 안정된 생활 설계
 - 사회적 제도에 대한 보완
 -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보험은 총자산의 72.1%인 180조원을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로 운용 기간사업 및 기업,가정의 경제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2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1) 민영보험

- 협의의 민영보험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광의의 민영보험 : 협의의 민영보험 + 공제
- 공제
 - 조합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보험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것
농협공제, 수협공제, 건설공제, 교원공제, 군인공제, 운송공제 등
 - 민법 제32조에 의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 체신공제, 철도청공제 등

2) 공영보험

- 운영주체가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아닌 것
- 사회보험 :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 국영보험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기구가 대행하는 보험
수출보험, 농작물보험, 체신보험 등

-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 사회보장 :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 사회보험 : 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정부가 보험회사 역할을 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보험가입에 강제성이 있는 형태의 보험
 - 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 사회보험의 특성
 - 법에 의한 가입 의무화
 - 급부혜택이 가입자의 권리
 - 급부혜택이 법에 의해 규정
 - 보험급부가 개인 형평성보다 사회 적정성에 초점 (소득재분배 효과)
 - 안정적인 보험재정 유지위해 건전한 재무계획 필요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공통점
 - 위험의 이전과 결합, 손실보상 기능
 -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 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적정 보험료 및 보험금의 산출 및 기금 적립 필요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구분	민영보험	사회보험
가입	자유의지	법 강제
급부 내용	선택	법 규정
보험료	급부만큼	소득기준 차별
시장	경쟁	국가 독점
계약심사	O	X

- 개인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3층 보장
 - 사회보장 : 국가가 최저수준의 국민생활을 보장
 - 기업보장 :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 및 퇴직 후의 안정된 생활 보장
 - 개인보장 : 개인이 필요 수준의 보장 받기 위해 자구노력
-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지원하는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

- 의료보호법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이 목적
 - 경제적으로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들만을 대상
 - 급부를 받기 위해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심사 필요
 - 정부의 일반 재정으로 보험금 조달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당,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기반>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한정 X	한정 O	
심사	X	O	
급부	보험료	국가 재정	
제도의미	수입유지	수입유지	기능적 서비스

3 보험의 기초이론

- 보험계약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와 물건, 손해 대상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 일정한 급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계약은 사람의 생사(生死)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과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부정액보험인 손해보험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1) 보험계약요소

-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진다.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입의무를 지는 자.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1인이든 2인이든 상관 없다. 단 20세 미만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보험대상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보장 물건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로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2) 보험료와 보험금

-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보험금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

3)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계약기간

- 보험 기간 :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 종료되는 기간으로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 한다.
 - 보험료납입 기간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간으로 보험기간이나 보험계약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보험계약 기간 :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기간과 일치하지만 소급보험은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더 길다.
- 예) 책임배상보험, PL(생산물 책임배상)보험 등

4)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
- [보충학습]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위반사례] :K씨는 동남아에서 파견 근무 중 간암 선고를 받고 국내에 잠시 입국 이 사실을 숨기고 암진단시 1억, 사망 시 5억을 보장 받는 생명보험에 가입 후 동남아로 출국 1년 뒤 국내에서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고지사항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됨.
- 통지의무 : 보험계약 성립 후 위험의 변경, 보험사고 발생, 주소변경등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진다.
- [보충학습]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2년이다. 즉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2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계약기간 중이라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5) 보험의 청약, 부활, 해약, 해지, 실효, 부활

- 보험의 청약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
- [보충학습] 계약자는 청약 증거금으로 1회차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기다리는 상태로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자필서명, 청약서 부분 미 전달,약관 미 설명 시에는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보험의 실효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효력을 상실
- 보험의 해약 :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소멸할 행위로 해약 시 해약환급금을 받는다.
- 보험의 해지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이 가능한 행위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지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의 부활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나 해지된 보험을 해지나 실효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4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의 선택

1) 보험상품의 특징

- 무형의 상품
 - 일반제조업의 경우는 TV, 자동차, 컴퓨터 등과 같이 유형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그 상품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에 때문에 구매에 따른 효과를 곧바로 느끼기가 어렵다. 따라서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생명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미래지향적 상품
 - 생명보험 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상품이다. 즉, 구입 즉시 효용을 느끼는 제조업체 상품에 비해 생명보험상품은 사망, 상해, 만기, 노후 등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점에서 효용을 인식하게 된다
- 자발적 상품
 - 생명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기에 때문에 가입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가입보다는 대부분 생활설계사의 권유와 설득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가입이 점차 늘고 있다.

2) 생명보험 상품

- 생존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즉, 사망보험에서 사망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어느 일정시점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존보험은 대부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다.
- <생존보험의 종류>
 - 유니버설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등
- 사망보험
 - 사망보험은 생존보험과는 반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 이 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定期保險)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終身保險)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사망보험은 만기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사망보험의 종류>
 -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 생사혼합보험
 - 생사혼합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때에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을 합친 것이다.
즉,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것으로서 사망보험금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을 동시에 겸비한 생명보험이라 할 수 있다.
- <생사혼합형보험의 종류>
 - 양로보험, 교육보험, CI보험등

3) 손해보험 상품

- 자동차 보험
- 일반보험
 - 일반손해보험은 통상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험보장 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일반손해보험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여러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 장기보험
 - 장기손해보험은 통상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고, 만기시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험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비한 보험상품이다.
 - 이러한 기능을 갖는 장기손해보험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4) 보험설계사의 선택

- 서비스 역량 : FP의 말을 경청하고 FP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고, 요청한
사항을 경쟁력있게 실행하는 것 등
- 경험과 전문성
 - 특정 분야의 경험을 통해 전문성 쌓임
 - 보험산업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일부 보험설계사는 세무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등과 같은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 구성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전문성

5) 보험회사의 선택

- 재무적 건전성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 상장사인 손해보험회사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활용 가능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 보험회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
 -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실태 평가 : 지급여력(30점), 자산건전성(20점), 경영관리(20점), 수익성(15점), 유동성(15점)에 대해 각각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 점수로 평가
- 보험금지급의 용이성
 - 신속한 보험금 지급 및 손해복구에 부수적 서비스 제공,
 - 민원 발생 여부 확인
 - 보험회사의 서비스 정도
 - 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장 제공
 - 고객의 특별한 니즈 충족 수용 가능 여부
 - 계약심사의 엄격도 확인
 - 보험상품의 가격 : 동일한 보장에 대한 코스트 비교

6) 보험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 보험나이를 잘 체크해라.
 - 건강보험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위험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 따라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하다. 그런데 보험나이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만 나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 그러나 생명보험 나이는 6개월 반올림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입일을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뺀 날이 24년 4개월이라면 보험나이는 24세이다. 그러나 24년 6개월이면 반올림 기준에 의해 25세로 적용 받는다. 즉 23년 6개월부터 24년 5개월까지는 24세로 적용을 받는 것이다.
- 보험(보장)기간을 길게 해라.
 - 보장성보험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가입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처음에 가입할 당시 보험료가 비싸다고 보험기간을 짧게 하여 가입하면 보험만기 시 후회를 하게 된다. 그 때(만기시)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나이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서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진다. 따라서 가입 당시에 보험기간을 길게 하시는 것이 좋다.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해라. 그러면 납입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 계약자와 수익자 지정도 신중을 기하라.
 - 계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받을 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문제가 없으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아버지가 내고 만기 시 보험금을 자녀가 받도록 하고 자 할 때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이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 특약의 장점을 잘 활용하라.
 -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된다. 주계약은 그 상품에 가입하면 자동적(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부분이고 특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약에 가입하면 보장부분이 강화되며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종류는 암보장특약, 교통재해특약, 일반재해특약, 주말보장특약, 입원특약, 유족특약, 장해특약, 성인병특약 등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암보장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보장은 변동이 없지만 암에 대한 보장은 강화된다. 따라서 가입자가 보장이 취약하다던가 아니면 더 강화된 보장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 설계사의 권유에 신중을 기하라.
 - 설계사가 상품안내를 할 때 계약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안내할 때도 있지만 일부 설계사는 자신의 실적, 수당에 초점을 두어 상품안내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길고 납입기간이 짧은 상품 또는 특약이 많은 상품은 설계사 수당이 많아진다. 이처럼 계약자의 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계사의 권유에 100% 따르지 말고 최종적으로 계약자 자신이 꼼꼼이 챙겨야 한다. 특히 저축성보험에서 보험기간을 설명과 달리 늘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확인해라.
- 보험회사도 중요한 상품이다.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자산운용을 잘하는 우량보험사를 선택해라. 최근에는 가격경쟁이 심해서 파산하는 보험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원금을 100%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유사한 상품인 경우라도 회사의 자산운용능력에 따라서 배당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금 지급 시에도 서비스가 중요하다. 보험금을 청구한 지 7일이내에 10억원이 지급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몇 십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1달 이상 걸리는 회사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이므로 회사선택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